

초역세권 입지에 완성한 대규모 주거타운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GS건설 컨소시엄

7호선 산곡역 앞 2706가구 규모 조성

GS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서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를 선보인다.

산곡6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0개 동, 총 270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0~84㎡, 12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0㎡A 112가구 ▲50㎡B 44가구 ▲59㎡A 307가구 ▲59㎡B 334가구 ▲59㎡C 213가구 ▲75㎡A 136가구 ▲75㎡B 60가구 ▲84㎡A 20가구 ▲84㎡B 63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산곡역 5·6번 출구 바로 앞 역세권 입지다. 7호선 이용 시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청라연장선도 공사 중이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부평IC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동IC 등도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수도권 각 지역 접근성도 좋다.

인근에 산곡북초와 마곡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산곡중과 청천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 인천의 우수한 학군이 밀집해 있다.

부평경찰서와 부평구청, 신트리도서관,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과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한다. 이와 함께 부천현대백화점 중동점과 이마트 중동점, 상동호수공원, 웅진플레이도시 등 부천시 상동·중동의 생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는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일부 타입에는 4베이, 팬트리, 드



레스룸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숲의 경관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조경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산책로와 휴게공간, 놀이터, 어린이 집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형 중앙광장이 구성되며 수 공간도 함께 배치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센터에는 운동, 학습,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운동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이 있고, 교보문고와 협업한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남녀 1인 독서실 등의 에듀존도 갖췄다.

원도심 인프라·복합 생활권 갖춘 입지

천안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대우건설

두정·불당 생활권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대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지하 2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438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59A㎡, 59B㎡, 74㎡, 84㎡, 101㎡, 114㎡ 등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천안 원도심에 공급돼 기존 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두정·불당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단국대학교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금융기관과 행정시설,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번영로와 동서대로 등 천안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통한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두정역과 천안역을 이용해 천안 도심은 물론 수도권 및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직주근접 여건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를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등이 가깝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넓은 동간거리와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통해 개방감도 확보했다. 실수요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특화설계를 통해 수납은 물론 공간 활용도까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와 유아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경로



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 및 생활 편의 시스템과 입주민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상품성과 주거 편의성도 높였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천안 원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환경, 직주근접 입지를 모두 갖춘 브랜드 대단지”라며 “다양한 평면 구성과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상품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만에 들어서는 원도심 브랜드 대단지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한화 건설부문·현대건설

진주 최초의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아파트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은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일원에서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를 분양한다.

이현1·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분

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398가구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가 들어서는 이현동 일대는 진주 원도심 생활권으로 교육·교통·문화·자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신규 분양은 2005년 1268가구 이후 처음이다. 특히 포레나와 힐스테이트가 함께 선보이는 진주 최초의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아파트이며, 이현동 첫 메이저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는 인근 진주대로와 순환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진주IC가 인접해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사천·창원 등 주요 도시 접근성이 좋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차량으로 10분대, KTX진주역은 2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축석초와 대아중·고 등을 통학할 수 있으며, 반경 약 1km 내에 봉원·봉곡초, 진주여중, 경진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또한 진주시립서부도서관과 진주시 최대 학원 밀집지인 평거동 학원가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반경 약 2km 내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메가박스 등 대형 유통 및 문화 시설이 위치한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차량을 이용하면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품은 직주근접 단지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 우미건설

청약통장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우미건설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에서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를 공급한다. 최대 10년간 안심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오산 세계 우미린 포레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후분양 형식으로 공급되어 계약 후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거 안정성이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승률도 2년 단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HUG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보증금 반환 걱정 없이 안심 거주가 가능하다.

단지는 오산대역 인프라와 세교 1지구 상권을 도보권으로 누릴 수 있으며, 세교 2지구의 마지막 민간 브랜드다. 세담초, 대호초, 대호중, 오산고교 등 학군도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수원·화성·평택·용인(계획)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생활도 가능하다.

교통 인프라로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1호선 오산역(오산역환승센터) 및 오산대역이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 접근성이 좋으며, 단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는 판교 및 강남역,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해 서울과 경기도 주요지역으로의 출·퇴근 또한 용이하다. 향후 오산역 GTX-C 노선 연장(계획)과 동탄도시철도 트램(예정) 등으로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지상에 주차공간을 두지 않는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을 비롯해 입주민 카페, 남녀 구분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수도권·... 알짜 아파트 청약에 도

신축 희소성에 전세난까지 겹치며 다. 건설사 역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 전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시개발사업지구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인 제지역인 부천과 인천에서 공급이 급이 드물었던 경남 진주와 충남 천안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은 반도체시와 오산시에서도 청약을 진행한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시세한 전문가는 “여름 비수기와 겹치며 ‘산업단지 배후나 신도시, 정비’청약 수요가 몰리는 선별 청약 기조

